

사회

# 짬통 교실 에어컨은 '장식용'

## 광주시교육청, 651억원 들여 교실마다 설치하고도 '42일 이상 틀지 말라' 교과부 지침 묶여 가동 못해

낮 최고기온이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51억원을 들여 냉·난방기를 설치한 광주지역 학교들이 '에너지 절약 지침'에 얽매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 학생들이 땀뚝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들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교육청과 학교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세부 지침' 공문을 통해 각 기관(학교)에서는 실내온도기준 강화(냉방 27도~28도) 및 냉난방 일수 조정(냉방 60일~42일)을 반드시 이행토록 했다. 교과부는 또 이러한 세부 지침의 이행여부에 대해 불시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대부분의 초·중·고교에서는 에어컨 가동을 자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일선 학교들이 추가 전기로 부담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학급당 10만~25만원씩의 공공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광주의 한 고교 교장은 "학생과 교사들이 더위를 호소하며 에어컨 가동을 요청하고 있지만 에너지 절약 지침에 따른 냉방비 절감 차원에서 아직까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7월이 되면 내부 회의를 거쳐 에어컨 가동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고교의 교장은 "본관 건물

의 가장 위층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 30도 이상이 되면 에어컨을 일시 가동하고 있다"면서 "우리 학교는 타 학교와는 달리 각 교실마다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교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어컨을 가동하더라도 실내 온도 냉방기준을 최하 28도로 못박은 탓에 에어컨이 제 기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냉방기준이 27도였던 지난해에도 "선풍기 몇 대를 틀어놓은 듯 하다. 차라리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게 낫다"는 등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3층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광주의 한 고교생은 "희망온도가 27도로 유지돼 에어컨을 틀어도 땀이 흐를 정도였다"면서 "제대로 틀지도 못하는 데, 에어컨이 최신행이면 뭐하느냐"고 불만을 털어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학교는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학생들이 조그마한 교실공간에 밀집돼 내부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에너지 절약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광주의 모 중학교 교사는 "학교교실은 수십명의 학생들이 밀집돼 있는 공간인 만큼 다른 시설에 비해 체감온도가 높다"면서 "실내온도 기준을 28도로 맞춰놓을 바엔 차라리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지침이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어גיע 되면 교육청 평가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초등 학교 105곳을 비롯한 중학교 61곳, 고등학교 47곳, 특수학교 4곳 등 모두 실공간에 밀집돼 내부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에너지 절약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민방위 화생방 훈련** 지난 1989년부터 중단됐던 유독가스 대피 훈련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21년 만에 재개됐다. 제379차 민방위 날인 15일 광주시 북구 운암1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상 화생방 전 상황에서 부상자를 옮기는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마약 '부창부수'

신안서 양귀배 재배... 남편은 아편 제조·아내는 판매

섬의 야산을 개간해 염소 방목장인 것처럼 꾸며 양귀배를 대량으로 재배한 간 큰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개 양귀배 밀재배의 경우, 농촌이나 섬 지방에서는 비닐하우스나 집 뒷마당에 수십주 정도를 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마을 뒷산에 지난해 11월부터 대량 재배에 들어갔다.

양귀배가 자랄 경우 잘 보이기 않도록 야산의 30여 곳을 가로·세로 약 1m 정도의 크기로 조그만 밭을 만들어 경작했다. 특히 30곳의 밭에 울타리를 세우고, 염소 방목장처럼 보이기 위해 사람 키 높이 이상으로 검은 그물을 쳤다.

이 때문에 다 자란 양귀배로 아편을 만들어 팔기까지 했지만 주위 사람들은 좁게 눈치를 채지 못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5일 양귀배를 불법 재배해 아편을 제조·투약한 전모(61·신안군)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남편이 만든 아편을 판매한 아내 김모(57)씨를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신안군 자신의 집 근처 야산을 개간한 뒤 주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곳곳에 그물망을 쳐놓고 양귀배 532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전씨는 양귀배 열매에 칼집을 내 흘러나온 유즙을 탈지면으로 채취하는 방법으로 72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생아편 21.58g을 제조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내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남편이 채취한 생아편을 개당 5만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판매한 생아편의 양을 조사하는 한편 또 다른 아편 투약자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80대 비브리오패혈증 의심 증상

해에서 80대 노인이 생선회를 먹은 후 비브리오패혈증 의심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에 사는 80대 노인이 지난 14일 설사 증상과 함께 다리에 피부병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인근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비브리오패혈증 의심진단을 받았다.

이 노인은 지난 12일 가족이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생선회를 함께 먹은 후 이를 뒤부터 비브리오패혈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으며 다른 가족들은 별다른 이상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취재본부=박희경기자 dia@

## 자부담금 가장 납입 9억 보조금 '꿀꺽'

### 담양 죽제품 업체 대표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15일 자부담금을 가장 납입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담양의 모 죽제품 업체 대표 박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 9월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총 사업비의 50%인 자부담금이 있는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군 보조사업비 7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 9월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총 사업비의 50%인 자부담금이 있는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군 보조사업비 7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 9월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총 사업비의 50%인 자부담금이 있는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군 보조사업비 7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나머지 50%인 국비 지원금을 다른 회사에 입금했다가 곧바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허위 입금증을 만들어 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해 4월에도 '죽염 제조 시설을 만든다'며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 1억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농성 주도 차량생산 방해

### 기아차 노조 간부 둘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15일 농성을 주도해 회사업무를 방해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간부 이모(30)씨와 양모(40)씨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2일 노조원 60여명과 함께 기아차 제2공장에 들어간 뒤 생산라인의 컨베이어(conveyor)와 자신들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3시간 동안 차량 생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황일봉 남구청장 개입 포착

### 경찰, 청장실 압수수색

'광주 남구청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분보 8일자 6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남구청장실과 홍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께 남구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청장실과 홍보실 등에서 컴퓨터 2대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자료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남구청 공무원 채모(41·6급·구속)씨가 구청 수의계약과 관련해 가로등업자로부터 수년간 억대의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자에게 받은 뇌물 중 황청장에게 승진 대가로 2200만원을,

비서실장에게는 600만원을 건넸다"는 채씨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채씨가 "지난해 10월께 업자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200만원을 구청 홍보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황 청장과 비서실장은 경찰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채씨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사업실때 30대 공원서 목매

15일 새벽 5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공원에서 김모(33·광주시 서구 풍암동)씨가 높이 2m의 빛나무에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등산객 정모(여·6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4년 전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광주로 내려와 혼자 생활해왔다"는 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김씨가 심연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번지수 못찾나" 승객 택시기사 폭행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번지수를 불러줬는데도 집을 찾아가지 못한다"며 따짜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9)씨는 지난 14일 밤 11시55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도로에서 박모(51)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금호동 7×번지를 찾아가지 못한다"며 박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피해자 박씨는 경찰에서 "만취한 손님에게 '번지수로는 찾아가기 어려우니 큰 건물을 말해달라'고 말했다는데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개강 7월 1일**

여름방학

7월 1일

한빛고시학원

## 압도적 1위 시설합격을 강시진

남보다 빠른 합격의 기회는 바로 여름방학이다!

# 공무원 합격전략설명회

# 유망직업 취업전략설명회

**일시: 6월 25일(금) 14:30 ~ 18:00**

**타원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5년연속 호남지역 최다합격자 및 수석합격자 배출

광주지역 수강생 80%이상 석권

#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북구청앞 062-234-0234)